



보 건 복 지 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리베이트 관련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최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을 수사하여 **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**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이사 및 **의사 101명 등을 입건**, 그 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. (*18.7.18. 서울서부지검 보도자료 참고)
 - 특히 동 수사결과, **다수의 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**되었습니다.
 -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의료법 위반 시 **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경고~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**을 받게 됩니다.

3. 이에 귀 협회에서는 의약품도매상 뿐만 아니라 특히 **의약품영업을 대행(CSO:의약품 영업대행업체)하는 영업사원으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유혹, 리베이트 자금을 의국 운영비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**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계도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,
 -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귀 회의 회원분들이 불필요한 오해나 관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.

붙임 : 관련 보도자료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대한병원협회, 대한의사협회, 대한의학회

연구위원(을) **박진선** 행정사무관 **신제은** 약무정책과장 **윤병철** 전결 2018. 8. 3.

협조자

시행 약무정책과-3670 (2018. 8. 3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(정부세종청사 10동)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493 팩스번호 044-202-3927 / sun9378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

이 보도자료는 2018. 7. 18.(수) 14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공보담당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자장검사 안성수
전화 02-3270-4302, 4322

보도자료 2018. 7. 18.(수)

자료 문의 : 식품의약조사부
전화번호 : 02-3270-4309,4329
주책임자 : 부장검사 이준엽

제 목 **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등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 수사 결과 - 16억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혐의 등으로 총 83명 기소 -**

개 요

- 서울서부지방검찰청 「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」은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을 수사하여,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**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**, 이 제약사 영업대행업체(CSO) 대표 1명 및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**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**, 그리고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**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**을 입건하여 그 중 **83명**을 불구속 기소하고,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위 제약회사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음
- 본건 수사 결과, 전국에 있는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,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음
- 서울서부지검은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임

1 범죄사실 요약

- **[제약사*, CSO*, 도매상]** '13. ~ '17.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, 법인카드 대여, 식당·카페 선결제 등 방법으로 제약사는 약 11억원(CSO 관여 부분 포함), 도매상은 약 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**약사법위반**

* 제약사 : '03. 설립된 연매출 200억원인 영양수액제 제조·판매업계 3위의 제약회사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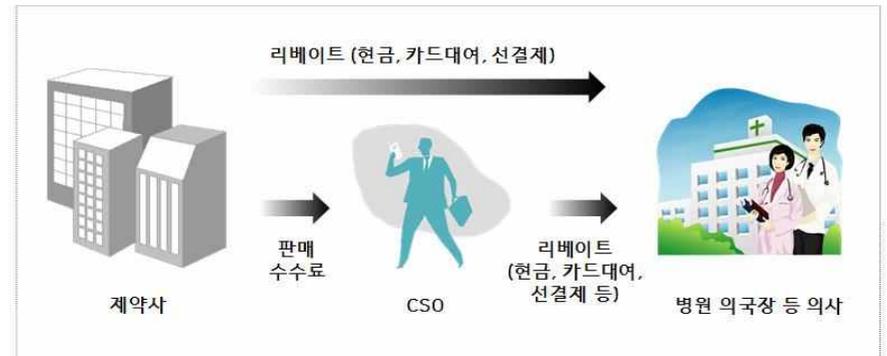
* CSO (Contract Sales Organization) : 영입대행업체. 제약회사와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약정하고 그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함으로써, 제약회사와 의료인 사이에 자금제공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

- **[제약사, CSO, 도매상]** '09. ~ '17. 위 제약사 영업사원 및 CSO들은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4억원 상당을 제공하고,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하여 **배임수중재**

- **[의료인]** '13. ~ '17. 위 제약사 영업사원, CSO 및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, 법인카드, 식당 선결제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 **의료법위반**

* 수수금액 별 분포 (최고 수수금액 5,195만원)

수수금액 (만원)	5,000 이상	3,000~ 5,000	1,000~ 3,000	700~ 1,000	500~ 700	300~ 500	300 미만
인원	1	2	11	16	16	28	19



2 수사 경과

- '17. 3. 20.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이첩 서류 접수
- '17. 11. 29. 제약회사 압수수색
- '17. 1. 30. 도매상 압수수색
- '17. 12.~'18. 3. 제약회사 임직원, CSO 등 40여명 소환 조사
- '18. 4.~6. 의사 100여명 소환 조사

3 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

- 관련 부처에 약가 인하 및 행정처분 요청
 -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, 영양급여 정지,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, 리베이트 공여한 위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의뢰
-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 수사 추진
 -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, 『식품·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』으로서 유관기관인 보건복지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경찰청, 국세청, 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과 협력하여,
 -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음 ☒